

## ■ 단신 ■

### 양영태 대표변호사, 강울리 변호사,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'한-미얀마 경제협력 포럼'에 참가



(법무법인 지평지성 양영태 대표변호사 · 강울리 변호사)

지평지성 양영태 대표변호사와 강울리 변호사는 지난 4월 6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'한-미얀마 경제협력 포럼'에 참가하여 미얀마측 인사들을 만나고, 미얀마 투자 관련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.

이번 포럼은 미얀마가 동남아의 신흥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과 미얀마의 정부·민간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는데, 한국을 대표하는 80여 개 기업과 기관에서 170여 명의 사절단이 참가하였고, 미얀마 측에서도 테인 세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장관급 고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.

## [관련기사]

- 미얀마, 외국인에 5년간 면세...투자레이스 시작됐다 - 매일경제(2012. 4. 4.)
- 미얀마 천지개벽 한국기업이 이끈다 - 매일경제(2012. 4. 4.)
- "미얀마 산업화 큰 역할 기대" - 매일경제(2012. 4. 6.)
- 예정에 없던 대통령 투자강의 ..."삼성전자, 사이버시티 와달라" - 매일경제(2012. 4. 9.)